

곡성·강진에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지방소멸 위기 대응·청년농업인·귀농인 안정적 정착 지원 월 1만원대 임대형 단지...2026년까지 6개소 180억 투입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농 스마트단지 사업 대상지로 곡성군과 강진군을 선정해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다.

영농 스마트단지는 귀농하는 도시민이나 현재 거주중인 청년 농업인들이 소득 창출이 가능한 작목을 선택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영농·농촌 정착에 있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월 임대료 1만원의 저렴한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교육, 커뮤니티 구성 및 활동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한다.

전남도가 도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16개 군) 중 8개 군이 응모했으며,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곡성군, 강진군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이들 군에 모두 30억 원씩 사업비를 배정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 군 자체적으로 조성 중인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와 연계한 특색있는 스마트 단지·빌리지 구축, 창농동지 운영을 통한 청년농 공동체 활성화 등 영농 스마트단지를 농업특화 거점지역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영농 스마트단지과 연계된 산·학·연을 구성하고 지역 내 스마트팜 법인 등 인프라를 통한

인큐베이팅 및 판로 확보, 사업 대상지 인근 빈집 제공과 청년농 리빙랩 추진, 임대형팜 기간 만료 후 창농 스마트팜 보조지원 등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정착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곡성군과 강진군에는 스마트팜 입차 청년농 및 교육생, 관계 인구 등 200여 명의 청년이 유입되고 향후 정착까지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청년 농업인이 정착하고 살고 싶은 영농 스마트단지를 조성,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농업인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180억원을 투입, 영농 스마트 단지 6개소를 조성해 청년농업인 유입과 안정적 농촌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구직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확대

647종 1인당 한해 응시료 최대 20만원...예산 소진까지 선착순

광주시에 청년의 구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어학·능력 시험과 국가 기술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국가공인 자격증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어학·능력 시험 6종, 국가 기술 자격증 545종에서 국가공인 자격증 96종이 더해져 647종으로 늘어났다.

올해 지원 가능한 자격시험은 어학·능력시험 6종(TOEIC, TOEIC Speaking, OPIC, TEPS, G-TELP,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545종, 국가공인자격증 96종이다.

광주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은

지난 1월 1일 이후 응시료를 1인당 1회에 한해 2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된다. 지난해에는 2193명이 지원받았다.

신청은 사업 시행기관인 '광주청년센터' 누리집을 이용해 신청서, 시험 응시 사실과 미취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인창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많은 실비가 지출되는 시험 위주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구직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해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갯벌, 생물다양성 가치 해석 확장"을

전남연구원 이슈리포트 발간...10개 키워드 제시 연계 방안 주문

전남연구원이 세계유산인 한국 갯벌의 재발견을 위한 10가지 핵심키워드로 생물다양성, 블루카본,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인류복지, 어민들의 이야기,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사회, 추가 등재, 해양환경교육 등을 제시했다. 세계유산 지정 한국 갯벌의 90.4%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이 생물다양성의 가치 해석의 확장, 블루카본 확대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유산의 확대 등재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연구원은 4일 '한국의 갯벌' 재발견과 전남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JNI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은 전남 신안갯벌과 보성·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충남 서천갯벌로 이뤄진 연속유산으로,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의 갯벌' 지정 전체면적 중 90.4%를 보유한 전남은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의 이해관계자로

서 지역주민과 협력해 '한국의 갯벌' 가치 확산에 힘써야 하며, 전남이 선도하는 갯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키워드로 '생물다양성'을 제시하며, 전남은 세계유산지역과 생물권보전지역 및 랍사르습지를 보유한 국제중복지정지역(MIDAs)으로, 전남도내 유네스코 지정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가치 해석을 확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은 국내 최대규모의 블루카본 서식지로, 갯벌, 염습지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며, 보성 빨배어업, 신안 갯벌 천일염업 등 전통적인 어업활동을 통한 갯벌 관리를 통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서의 문화다양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체험하는 '미디어아트' 4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복합전시1관에서 열리고 있는 체험형 미디어아트 전시 '디어 바바노냐'를 찾은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맛집' 시민이 뽑는다

시민평가 첫 도입...12일까지 광주는 통해 설문조사

광주시는 "5일부터 12일까지 2024년 '광주 맛집'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맛집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업소가 선정하면 전문가 평가를 통해 맛집을 선정했으나 올해

는 전문가 위원수를 15명에서 43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시민평가를 도입했다.

광주시는 설문조사 결과(2차)와 전문가 평가(1차)를 합산해 광주 맛집 30여 곳을 최종 선정하며, 광주 맛집으로 선정되면 새롭게 디자인된 지정패를 수여하고, 맛집지도 홍보,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는 광주온(gwangjuon.gwangju.go.kr)에 접속해 '광주맛집'이라고 생각하는 업소를 선택하면 된다. 선택이유, 개선의견 등은 자유롭게 작성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앞서 광주시는 희망업소 선정, 시민 추천,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제안받은 173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1차)를 거쳐 60개 업소를 선별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관광도시과 또는 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사업장 설 명절 앞 환경오염 감시

15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고농도 폐수 배출 등 중점

전남도가 설 연휴 기간 중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외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등 취약시설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설 연휴를 전후 오는 15일까지 보름간 환경오염 예방과 감시활동에 역점을 두 단계별로 추진한다.

연휴 전인 8일까지는 특별감시 대상 1080개소에 대해 사전 홍보·계도 활동과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도, 시·군 합동(24개조 52명)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기간 중에는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환경오염 사고 등 긴급 상황발생 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연휴기간 이후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2217개소를 점검하고 446건의 비정상운영 사항을 적발해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특히 위반행위가 엄중한 51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